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9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9
2020 년 11 월 29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57890977](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57890977)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1 월 29 일

차례

1. [법을 지키면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3
2. [법원의 판단에 좌고 우면 하지 말자]	3
3. [기만에는 오직 투쟁으로]	4
4. [그래서 느그당이름은?]	5

야기해왔다. 우리의선택은그렇기에확언하다. 우리는노동자들과인민의직접투표로의사가결정되는조직들의연합을추구한다. 민주를부르짖으나민주주의가없는정당따위와는같은길을걷지않을것이며, 동시에민주를추구하나민주주의가없는국가체제와는같은길을걷지않을것이다.

<http://naver.me/FLSkjnfI>

1. [법을지키면정상운영이되지않는사업장이있다?]

철도노조가 27 일 (금) 부터준법투쟁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 “법”이라는것이신성한것이고, 어떤일이있어도지켜야만하는것이고, 지키지않는다면엄벌이필요하다고말하는국가의신봉자들에게는놀라운일이겠지만, “준법”도투쟁이다. 철도노조는안전운행실천, 연장근무거부, 휴일순수를하기로결정했고, 그결과열차운행은취소되고, 지연되고있다.

이것이보여주는것은자명하다. 코레일은, 한국의철도사업은법을지키면운행할수없다. 안전정비에서불량이나온차량도출고해서굴려야정상운행이가능하다. 노동자들이연장노동, 휴일노동으로갈려나가야정상운행이가능하다. 법이노동자들을지켜주지못함은너무도당연한일이어서, 그저“법대로하자”는것이철도사업에지장을준다.

민주노총의투쟁에“법대로엄정히대처할것”이라는정부에묻는다. 철도노조가파업을선포할때마다매번“불법파업에엄정히대처하”겠다는대체인력을투입해파업을파괴하려시도하던코레일에묻는다. 법을지키기만해도열차운행에차질이빚어지는, 당신들의“불법조업”에는어떻게“엄정히”대처할것인가?

노동자들이투쟁할때, 자주듣게되는얘기중하나로, 투표잘해서법을잘만들게하라는말이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은그렇게해왔고, 그결과가이렇다. 법은결코노동자들을지켜주지않는다. 노동자들의파업투쟁에서단하나라도절차가어긋난다면, 그것은“불법파업”이되어엄정한대처를당한다. 노동자들이법을지키면사업이굴러가지않는데, 그“불법조업”은괜찮다.(심지어, 절차를지키지않고“준법”투쟁을하면, 그건“불법파업”이된다.)

이렇거면그냥법그만하는게낫지않은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9073&ref=A>

2. [법원의판단에좌고우면하지말자]

11 월 30 일월요일, 학살자전두환의회고록중고조비오신부를’ 파렴치한거짓말쟁이’ 라고표현한데대한사자명예훼손 1 심판결이선고된다. 전두환이고조비오신부에대해이러한표현을했다는데에천인공노할일임은그누구도부정하지못할것임에틀림없다. 전두환이헬기사격을지시했으며광주에대한학살명령총책임자라는사실이이제는어둠속에숨어이야기할비밀이아니게된덕분이다.

다만법원의판단이라는것은그사안이큰것이든작은것이든늘’ 정치적판단’에의해바뀌기마련인것이다. 때문에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내일학살자전두환

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나 오더라도 그다지 실망하지도, 기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작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기이한 논리가 무엇에 의한 것이었으며, 크게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처벌받는 이모든 일들이 결국 그 시대와 몇몇 인물의 정치관, 정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중의 사회혁명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법원의 판단에 이리저리 휩쓸려다니는 경향에서 이제 탈피해야만 한다. 법원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 나와 내 주변 이들의 판단, 그 판단을 할 자유야말로 우리가 자주적인 인간임을 보이는 출발선일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법적 판단 역시 법계를 웃어넘기자. 사법부가 잘못 된 것이라고 하여 사회혁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할 아나키스트는 없지 않겠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3319?sid=102&fbclid=IwAR0CApQd14TroFLPy7N2CpHPMb99JPBTS0cq9sGIY03BdfAQ9Z4h9Q>

3. [기만에는 오직 투쟁으로]

전국 철도 노조 코레일 네트웍스 지부와 철도 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3 주차에 접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규정상 2 인이 1 조로 근무해야 할 지역에 1 인이 근무하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 파업에 접어들면 국면에서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 재개도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 또한 노동 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노사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공약하며 임기 시작부터 공항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만이 가발려진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지금 일어나는 갖은 노동 운동에 대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대대 압박하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 기에 노동 계급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과 자본에는 위기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수십조를 퍼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며 코로나 사태의 짐을 온전히 물리는가?

노동자들의 요구 중 하나인 '2 인 1 조 근무'는 노동 조건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이기도 하다. 공공 서비스의 무관심 일반 시민에게 의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공

정성을 위해 투쟁 활동 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 간 공공 안전을 강조한 주제에 보다 노동 착취를 위해서 안전성 조차 방기하고자 하는가?

우리 정부에 어떤 공정성도 공공성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노동자의 직접 투쟁에서 나올 수 있을 따름이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http://www.tdaily.co.kr/news/view.php?idx=35575>

4. [그래서 느그 당 이름은?]

경애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욱의원 동지께서 감히 정부와 자본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 노총에게 '민주' 글자를 빼라는 엄명을 내리시었다. 존경하는 이원욱의원 동지께서는 민주 노총이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시면서, 노조 조직률 11% 중절반뿐인 민주 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 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리시었다.

어떤가, 정말 헛소리의 향연이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는 이상한 소리들 뿐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 노총을 비판하는 이원욱 의원은, 정작 수많은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후안무치한 노동자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손아귀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이 최저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책에서 반동적,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는 정당에서 정치 질하면서 자신은 국민을 위한다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가 보다. 노동 조합 조직을 먼저 탄압하고 찍어눌렀던 정부와 자본의 행위는 눈에 들어 오지 않고 오로지 조직률만 보고 노동자를 대변하니 대변하지 못하니라고 있는가 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 체제와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낀다. '민주' 딱지를 떼라고 강력히 '사이다' 발언을 내세우는 의원이 속한 당에서는 정작 20% 대당원 투표를 집행한 것 가지고 이것이 당원의 민심이니 뭐니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논란이 되니 그 '당원 투표'는 여론 조사일 뿐이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다 못해 민주 노총이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는 데에는 대의원 회의에서 투표를 거치는 절차라도 거쳤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불일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당지도부와 프롤레타리아 학살자 대통령의 입?

국가 체제에 복역하는 정당들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 체제 그 자체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많이 이야기해왔다. 동시에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